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대만 은혜 국제 신학교 강연

ACT NEWS

대만-한국-일본 순회 세미나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4월 7일 - 5월 7일 한 달간 대만-한국-일본 순회 세미나를 마치고 LA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히 대만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은혜 국제 신학교'에서 이틀간 8번의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400명 이상이나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과거 유일한 역사는 성경본임을 확인하는 감격을 경험했음을 간증했습니다. 대만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3%에서 최근 5%로 증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만에 복음 전파의 도구로 창조과학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집중세미나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강의와 함께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훈련을 받았던 ITCM 수료자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었습니다. 3일간 부산 영도 연합회(회장 손동후 목사)가 땅끝교회(담임목사 김운성)에서 열렸습니다. 다섯 번의 집회는 연일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믿음의 전수에 창조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공감했습니다. 이에 오는 겨울방학 때 중, 고등, 대학생들의 연합수련회를 창조과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집회기간 중에 영도지역 목사님들만을 위하여 “진화의 반대는?”의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신촌장로교회(담임목사 조동천), 지구촌교회(조봉희), 애일교회(한혜관), 고신의료원, 온누리 전문인 선교 훈련학교,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등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창조과학 단체인 Love Creation(회장 사사키 미즈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는 열흘간 진행되었는데, 동경의 요도바시교회, 동경 요도바시교회, 오사카 온누리교회, 오사카 야오교회, 미토 제일침례교회, 제일 대한 나가노교회, 후나바시 침례교회, 야찌오 온누리교회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되는 곳마다 일본 선교에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인 1877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리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창세기 1-11장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일본 교회 부흥은 없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Love Creation은 오는 8월 말 8일간의 탐사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국 순회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창조과학 사역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최우성 박사 인도로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4월 1일/8일/15일), LA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정엽, 4월 1일/ 5월 6일), 세리토스장로교회 늘푸른대학 (4월 27일)에서 있었습니다.

김선욱 박사가 인도한 (EM 사역) 세미나들은 버지니아 크리스천대학교(4월 9일), 주님의영광교회 (4월 27-29일), 그리고 Zion Wesleyan Church (Ellicott City, MD)에서 5월 6일 진행 되었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진 곳에서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고 창조과학 사역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탐사여행

중부창조과학학교

지난 4월 9일 개강한 시카고 지역의 중부창조과학학교가 시작 되었습니다. Buffalo Grove 에 있는 엑소더스교회 (담임목사: 이철원)에서 23명이 등록한 가운데 매 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하며 6월 18일까지 계속 됩니다. 연락처: 847-208-9544

탐사여행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탐사여행

지난 4월 1-5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으로 탐사여행에 열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매년 두 번씩 탐사여행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시거나 추천하실 분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로 연락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탐사여행은 10월 말에 출발합니다. 내년부터는 사흘 더 늘려 빙하시대 탐사 여행까지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난 한국 방문 때 4월 23일 하루간 '노아홍수를 알면 창조론이 보인다' 특강을 인도했습니다. 12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수강했으며, 오는 10월 11일 '빙하시대 이야기' 특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1일 샌디에고 탐사여행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목사 김한요)는 지난 3월 17일에 이어 4월 28일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번 견학은 늘푸른대학을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장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창조박물관 견학

샌디에고의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은 성경적인 창조를 잘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에는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모집 탐사여행

오는 7월 26-28일 모집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예정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4차 유학생/신학생 탐사여행 모집

- 일시: 2012년 8월 6일-8일(월-수)
-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참가 대상 및 참가비: 유학생/신학생 : \$100.00

유학생 탐사여행은 한국 온누리교회와 알바인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며,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 3기 ITCM 모집

창조과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ITCM-1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3기 기간은 6

월 22일 - 8월 18일이며,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신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홈 페이지 “창조사역 집중훈련”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보시
거나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
는 젊은이들에게 적극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2 창조과학 컨퍼런스 - 노아홍수와 빙하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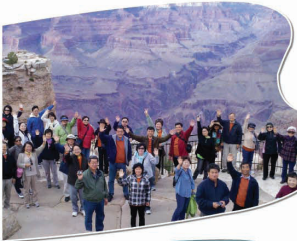
7월 6일(금)부터 8일(토)까지 3일간 시카고 헬로쉽교회(담임목사: 김형균)에서 창조
과학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주제는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로 본 선교회 7명의 강
사들 전원이 참석하여 강의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EM 청장년들과 어린
이들도 동시에 진행 되므로 전 교회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헬로쉽교회는 2001년에도 컨퍼런스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모든 연
령층과 언어를 망라한 컨퍼런스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성경에 큰 부흥의 초석을 놓는
창조과학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들과 참석자들이 잘 준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출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소: 665 Grand Canyon St. Hoffman Est., IL 60194 / 전화: 847 884 0951



2012 창조과학 컨퍼런스



노아홍수와 빙하시대

일 자	시 간	일반 트랙	초 중 고 트랙
7월	8:00 ~ 9:00 PM	노아홍수 1 (이재만)	주일학교 1 (김낙경) 중고등부 1 (John Kim)
	9:00 ~ 10:00 PM	노아홍수 2 (이재만)	
7월	6:00 ~ 7:00 AM	노아방주 (이재만)	
	2:00 ~ 2:50 PM	지적설계 (김무현)	
	3:00 ~ 3:50 PM	세계관 (최태현)	
	4:00 ~ 4:50 PM	새 우주모험 (이동용)	
	7:00 ~ 8:00 PM	빙하시대 1 (이재만)	주일학교 2 (김낙경) 중고등부 2 (John Kim)
7월	8:00 ~ 9:00 PM	빙하시대 2 (최우성)	
	9:00 ~ 10:00 AM	성가대 특강 (최태현)	
	11:30 AM ~ 12:30 PM	2부 예배 특강 (김무현)	주일학교 3 (김낙경) 중고등부 3 (John Kim)
	10:10 ~ 11:10 AM	성인 주교 특강 (이재만)	
	2:00 ~ 3:00 PM	유전 정보와 인류 역사 (최우성)	
	3:00 ~ 4:00 PM	연대 측정 Update (이재만)	



후원 | 구세군교회, 미드웨스트교회, 삼버그침레교회, 시카고 한인교회, 아가페교회, 은혜침례교회,
제일연합감리교회, 엑스더스교회, 한인제일장로교회, 베들레헴교회, 크리스천저널

주관 | 창조과학선교회 / 시카고 헬로쉽교회

장소 | 시카고 헬로쉽교회 (665 Grand Canyon St, Hoffman Est., IL 60194) Tel. 847 884 0951



“사고가 너무 제한 받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는 매일 UFO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극장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TV, 신문, 소셜, 만화... 심지어 어린이들의 과학잡지에서도 UFO의 목격담 등이 실려있다. 이런 UFO로 가득 찬 환경에서 꼭 UFO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해야 할까? UFO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들에게 가끔씩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 애들의 상상력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즉 한창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키워야 할 시기에 그 기를 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UFO란 생각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인가? 수백 억년 전에 우주가 폭발했다는 빅뱅, 수십 억년 전에 지구에서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물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진화해왔다는 지질시대표, 그리고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발전했다는 아득한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는 UFO 존재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존재유무를 언급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기독교인을 포함해서)의 공통적 사고가 말해준다. 그들 모두가 위의 진화과정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앞 칼럼들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또한 이들의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UFO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려면 결국 성경과 대립되는 생물의 기원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원에 관한 부분이 등장하면 무시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구만을 언급하며 생물들을 창조하고 계시며, 넷째 날 하루만을 할애 하며 별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이나, 이 특별한 지구에 유일하게 창조된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 대하여는 성경 기록을 무시해야 한다.

왜 다른 주제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할 때도 UFO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을까? 존재 여부에 대

한 궁금함도 있겠지만 믿음의 기초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더 궁금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UFO가 존재한다면 성경과 대치될 것 같은 잠재적 이해가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UFO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잠재적인 찌꺼기가 제거되는 느낌과 함께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상쾌함을 느낀다.

결국 성경에 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UFO에 대해 정리되면 기원에 관한 자신의 입장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UFO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동성결혼, 낙태, 혼전 관계 등의 도덕 기준에 대하여도 성경적 자세를 배우게 된다. 이는 UFO는 과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을 따를 것인가 하는 기원에 관한 세계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영적인 문제다. 사탄은 UFO를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게 하면 그 목적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창조 목적도 바꾸며, 결국 성경에서 마음을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탄의 창작품이다.

우리 자녀들은 UFO의 공격을 매일 받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UFO에 대하여 물어오면, 증거가 없다는 것, 과학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이를 없다고 말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유일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그 귀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겸손하자고 말한다. 어떤 이는 보이는 이 세계가 진리인 양 우주를 진리란 말로 바꾸어서 '진리 앞에서 겸손하자고' 한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피조물을 초월한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뿐이다(요 14:6). 성경은 보이는 것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광활한 우주에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상력이 우선인 생각, 그리고 이들을 인정해야만 더 겸손할 것 같은 생각은 모두 틀린 자세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교만과 우매함이니..." (막 7:21, 22).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말씀을 좇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수많은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 안에서"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생명의 시작은 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롬 9:1). 참 말도 주 안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 안에서 UFO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고가 무궁무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화론의 굴레 속에서 모든 것을 사고해야 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북극곰의 죽음

수집 마일을 수영해 온 배고픈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몸집보다 크고, 무서운 상아 엄니가 있는 바다코끼리(walrus)를 잡아 먹으려다가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아에 찢려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었다. 지난 2006년 BBC에서 제작한 “행성 지구(Planet Earth)”라는 DVD시리즈에 들어 있는 한 장면이다. 이 DVD는 쉽게 볼 수 없는 진기한 것들을 찾아 보여 줄 뿐 아니라 최상의 화질과 음질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걸작(masterpiece)”, 시카고 트리뷴은 “올 해 최고의 DVD … 절대적으로 비범한 성과물”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다. 포장지에는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깊은 강까지”, “우리 행성의 초상”, “행성 지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라고 쓰여 있다.

강자가 영웅이 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DVD의 설명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DVD는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낮은 바닷속까지 약육강식의 처참한 장면이 DVD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막이나 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현실이 그 DVD가 말한 “우리 행성의 초상”임이 분명하다.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 이 행성 지구는 절대로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장엄하다고 하는 산과 강도 실상은 노아홍수의 심판과 빙하시대의 고통이 남겨 놓은 것일 뿐이다.

2006년 4월 캐나다에서는 회색곰(grizzly bear)과 북극곰(polar bear)의 잡종이 사냥꾼에게 잡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곰들은 자연교배를 하지 않는 서로 다른 종(species)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색곰은 북극곰이 사는 지역보다 남쪽에 살고 있으나 서식지가 약간 교차되고 있어서 교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자연환경에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에 잡힌 곰은 북극곰과 회색곰 모두에게서 유전정보를 물려 받은 한 종류(kind)의 곰일 뿐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잡종이란 단어는 적당한 단어가 아니다.) 이들의 조상은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곰 조상으로서 변이(variation) 과정을 통해 약간 다른 색과 골격을 가지게 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지난 호에 설명한 것처럼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종류였듯이 북극곰이나 회색곰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도 교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서식지가 다른 북극곰과 회색곰이 교배하여 잡종을 낳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남쪽으로 내려와 회색곰 서식지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북극곰의 멸종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극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북극곰과 회색곰의 서식지가 겹치는 이유는 회색곰이 북상하기 때문이지 북극곰이 남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또 재미 있는 것은 과학자들은 이 잡종들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극곰과 회색곰 사이에서 태어난 곰들은 두 종의 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를 다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방주에서 시작한 조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회색곰이나 북극곰으로 변하는 변이와 자연선택 과정에서 유전정보가 각각 조금씩 손실 된다. 그런데 그 손실 된 부분의 유전정보는 잡종 곰에게 다시 모아지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조상 곰의 유전정보에 더 가깝게 회복이 되고 자연히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지구는 극한 가뭄 속에서,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높이 치솟은 산정에서, 그리고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긴장하며 몸부림치는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담의 범죄, 노아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과 빙하시대의 역사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11:6-7)라고 희망을 기록하였다. 그 날은 곧 온다. 그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DAYS OF CREATION IN GENESIS ONE

© AiG 2004



DAY 1
EARTH, SPACE, TIME & LIGHT



DAY 2
ATMOSPHERE



DAY 3
DRY LAND & PLANTS



DAY 4
SUN, MOON & STARS



DAY 5
SEA & FLYING CREATURES



DAY 6
LAND ANIMALS & MAN

AiG CREATIONS

www.AnswersInGenesis.org

하나님의 진화?

“진화”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로 이어지는 생물 진화를 떠올린다. 하지만 생물진화가 “진화”의 전부라면 진화라는 아이디어는 인류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진화라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생물진화론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온 철학의 한 관점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은 신으로부터 나왔고, 신의 의지에 의해 그 잠재적 모습이 이 세상에서 역사를 따라 펼쳐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고이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가족이 커져서 국가가 되듯이 세상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이다.

변증법 혹은 정반합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어떤 이들은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내 의견, 네 의견, 그리고 종합’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나” 혹은 “너”는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내 의견” 혹은 “네 의견”은 그 자체로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완전한 실체라면 그것이 변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 의견”과 “네 의견”이 합쳐져 종합될 수 있다면 “내 의견”도 “네 의견”도 진리가 아니었다. 진리는 그렇게 어중간히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합쳐진 의견도

“또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합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본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초점이 지금 보이는 실체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종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적 사고, 즉 모든 것이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의 시작부터 존재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간단히 말해서 과정적 사고는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정통기독교의 하나님을 변화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 과정적 사고에도 기원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원은 신이다. 또, 그 신은 출발이며 마지막이다. 이러면 성경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은 이것이다.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부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이 세상은 유한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주관자이다. 반면 과정적 사고에서는 이 세상의 변화 과정이 바로 신의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인간의 속성이듯이 이 우주의 변화가 신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하듯 신도 그렇게 진화/성장/변화한다고 이해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정도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적 철학이 있기에 일부 타협이론창조론자들이 하나님은 150억년 동안의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거나 진화가 하나님의 속성이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와 발맞추는 하나님의 점진적/진화적 창조는 과정적 사고의 틀에 비추어보면 그럴 듯하다. 인간적 관점에서 논리는 그럴 듯하지만, 불행히 그 결론은 성경과 명백히 반대된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언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사야 44:24). 성경의 하나님은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창조하시고 (창세기 1:3) 단번에 이루시는 분 (히브리서 9:26)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세상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고에는 저마다 한계가 있다. 과정적 사고가 세상을 설명하는데 일부 적용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진화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는 그럴 듯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니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수백만 년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2)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간격?

수백만년, 수십억년
지질시대
루시퍼의 홍수

창세기 1:2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오랜 지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

19세기 전반기 동안 교회는 격변론과 동일과정설의 오랜 지구 이론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했다. 영국(그리고 미국의 소수)에서의 “성서적 지질학자”라고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들은 오랜 지구 이론에 대하여 성경적,

지질학적, 철학적 논쟁을 증가시켰다. 그들 중 몇몇은 과학자였으며, 성직자도 있었다. 그 시대 수준으로 볼 때 몇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암석과 화석에 대한 책뿐 아니라 자신의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당시 기준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들은 오랜 지구 이론보다 창조와 노아홍수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암석기록을 훨씬 더 잘 설명한다고 믿었다.

동일과정주의자들과 격변론자들이 여전히 논쟁하고 있었으며 지질학이 과학으로써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년 초기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수백만 년이란 생각을 쉽게 받아들여 이 오랜 기간을 창세기에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였다. 1804년에 젊은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 켈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는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교하기 시작하였으며, 1814년의 큐비에의 책 서평에서 그는 모든 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당시 켈머스는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리더가 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간격이론”은 아주 인기를 얻게 되었다. 1823년에 평판이 높았던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인 조지 스텐리 페이버(George Stanley Faber, 1773-1854)는 창조의 하루들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긴 시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날-시대 이론의 관점을 옹호하였다.

이 지질학적 연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홍수를 재해석 해야만 했

다. 1820년대에 장로교 목사인 존 플레밍(John Fleming, 1785-1857)은 노아홍수가 아주 고요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지질학적인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회중교회 신학자인 존 파이 스미스(John Pye Smith, 1774-1851)는 홍수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오늘날의 이라크)에서 일어난 지역적 홍수로 보기를 선호했다.

자유주의 신학이 1800년 초기까지 유럽교회를 장악하면서 1820년에는 영국과 북미로 침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대 바벨론, 수메르, 에집트 사람의 창조와 홍수 전설처럼 창세기 1-11장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성경을 믿는 지질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대한 오랜 지구로의 다양한 재해석들이 우세해져서 1845년이 되었을 때는 창세기에 대한 모든 주석들이 성경적 연대기와 전지구적 홍수를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이 출판되며 젊은 지구 관점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 때부터 교회의 기독교 리더들과 학자들은 수백만 년을 받아들였으며 지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진화론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단지 몇 가지의 예만 들어 본다.

침례교의 “설교계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펔전(Charles Spurgeon, 1834-1892)은 (그가 성경과 오랜 연대가 어떻게 맞는지 결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지구의 지질학적 이론을 비평 없이 받아들였다. 1855년에 했던 그의 설교를 보면:

내게 태초가 언제였는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년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시작을 아담이 태어났을 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맞은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무질서한 물질을 준비하셨고, 지구 위에 여러 종류의 생물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생물들이 죽어 하나님의 경탄할만한 솜씨를 볼 수 있는 흔적들을 남겼다는 것과 그 후에야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인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79-1878)는 지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간격이론을 선호했으나 나중에 날-시대 관점으로 전환했다. 그의 타협적인 태도는 그의 사망 후 약 50년이 지났을 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스코필드(C. I. Scofield)는 자신의 주석성경에서 간격이론을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주석으로 달아놓았는데, 이 주석을 수백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더 최근에 와서 정평 있는 구약 학자들이 논단하기를:

창세기 1장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 표현들은 모든 창조과정은 24시간 하루인 6일간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것이 히브리 저자의 진정한 의도였다면... 이는 행성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현대 과학적 연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질학자들이 수백만 년을 증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가정 하고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 학자들과 리더들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했음을 보여 주는 위와 비슷한 수많은 표현들을 인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대부분 신학교나 기독교 대학들은 타협하게 되었다.

한국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탐사여행

2012년 4월 1-5일

나 혼자만 참여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수영

교회에 다닌 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처음으로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한적은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처음이었습니다. -황선희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신원식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에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 모든 분들이 창조과학탐사여행에 꼭 가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현호숙

‘창조과학탐사여행’은 그냥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 자유로워지는 여행입니다. 강추합니다. -하경화

하나님의 창조, 믿음은 있지만 마치 신화와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손현승-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과학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의 지식을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손희승

창조에 대해 진화론적 창조로 생각했고, 명확하지 않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으로 성경의 사실에 대해 저의 생각이 정리된 것과 ... -박미우 권사

패러다임이 바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고무송 집사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 하고 나서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몇 십 번 읽었던 성경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지고, 여러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애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랍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만나셨다면 여기 미국에서의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박선희 집사

그 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지고 있음을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새와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그 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내 눈은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주수원<금감원 선교회>

각기 종류대로 창조 하시고 번식했다는 설명을 들을 때에 합성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설명을 들을 때에는 마구 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영

창조자의 능력과 사랑과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을 정도로 창조 과학탐사여행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병일

여행하는 동안 내내 머리 위에는 수백 미터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재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숨결과 놀라운 창조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지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 많은 갈등과 의문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으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내 눈으로 본 것과 그 증거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싶습니다. -송미자

내 인생의 대 격변 사건입니다. -이경숙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그랜드케년을 보게 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박상훈

우리의 조상들이 잊어버렸던 옛 세상 이야기를 증인을 통해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미숙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나의 믿음이 실체가 있었을까? 우주보다 별과 태양보다 '우리들' 이렇게 깊이 사랑해 주심을 깨닫는 탐사여행이었습니다. -김의배

남의 이야기 같았던 창조론과 진화론의 내용들이 이재만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옥

창조과학탐사여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현덕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며 비전을 제시한 프로그램임을 확신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이번 탐사여행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감동에 빠졌습니다. -이수빈

창조과학탐사여행이 있음으로 창조 된 사실의 강의를 듣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위해 사역하시는 창조과학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시훈

2012년 ACT Schedule

- 
- 6/2 샌디에고 탐사여행 영락교회, (최우성)
 - 6/9 ANC 온누리교회 창조과학학교/숙성반 1 (이재만, 최우성), CA
 - 6/10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LA, CA
 - 6/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파사데나드림교회)
 - 6/16 ANC 온누리교회 창조과학학교/숙성반 2 (이재만, 최우성), CA
 - 6/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충현선교교회 E.M.)김선욱
 - 6/24-30 빙하시대 탐사여행 (CGN-TV, 213-381-1390)

 - 7/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감사한인교회 213-381-1390)
 - 7/6-8 창조과학컨퍼런스(시카고 헬로우쉽교회)
 - 7/13-15 빙하시대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7/14-15 토랜스 은혜로교회 (최우성), CA
 - 7/19-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서남교회, 213-381-1390)
 - 7/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213-381-1390)
 - 7/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탐사여행, 213-381-1390)이재만
 - 7/30-8/2 창조과학 탐사여행 (필라델피아영생창로교회, 213-381-1390)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 (14차 유학생, 신학생, 213-381-1390)
 - 8/6-8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브레이크 E.M., 213-381-1390)김선욱
 - 8/13-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8/13-15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타코마제일침례교회, 213-381-1390)김선욱
 - 8/23-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

 - 9/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 9/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3-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9/7-9 Church of Bethlehem (김선욱)
 - 9/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12-14 빙하시대 탐사여행 (KPCA 서중노회, 213-381-1390)
 - 9/14-24 일본방문(이재만)
 - 9/1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2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